

우리나라 낙농의 질병과 현장

농민과 낙농업의 현실과 희망

김재경

베스트카우컨설팅 대표

산욕 마비 말로하자면

산욕마비는 분만 후에 혈액내 칼슘이 저하되어 발생하여 기립불능증상을 나타내는 질병으로써 마그네슘, 인, 칼륨, 당 및 단백질의 대사 이상에서도 발생한다. 초산우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경산우에서 많이 나타나며 비유초기에 과도하게 착유하는것도 하나의 원인이다.

초기에는 걸어 다니는 모습이 비틀거리며 사지가 마비되어 기립불능 증상이 되고 심하면 혼수 상태에 이르러 잘못되기도 한다. 가끔 분만후 밤사이에 간다는 얘기도 못하고 잘못되는 소는 대부분 저칼슘혈증으로 인해 일어난다고 해도 잘못된 말이 아니다.

질병에 걸리는 소는 거의가 다 그렇듯이 코 주변이 건조하고 눈이 조금 침침해 보이고 위와 장운동

이 저하되고 몸은 차가워지고 직장체온은 초기에는 조금 감소(38.1°)하며 심하면 체온이 36.5° 이하로 저하된다. 대부분이 분만 후 즉시 칼슘 복합제를 주사하면 이 질병은 예방할수 있다.

주사방법은 분만 후 즉시 25% 칼슘주사액(상품명: 씨디피씨엠디, 칼폰 등등) 500ml를 혈관에 서서히 350ml정도 주사하고 나머지 150ml 정도는 피하주사를 하면 장시간 유지하여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량이 많이 나오는 소는 농축 칼슘제(칼폰포르테, 서칼세 등등)을 12시간 간격으로 1병씩 3~4회 피하주사를 하면 더욱더 좋다고 생각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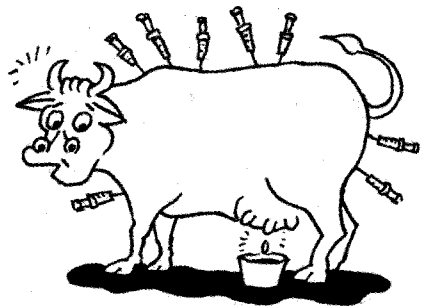
기립불능우 저지 요령

1. 일어나지 못하는 소에게는 가능한 폭신한 바닥으로 옮겨야만 한다.
2. 물과 사료를 항상 먹을 수 있도록 한다.

주인님! 제발 칼슘제와 영양제쯤 주사해 주세요. 아무래도 몸도 다리도 그렇고 말을 듣지 않네요.

알았어! 내가 칼슘 주사 놓는 것 깜박 있었네. 금방 놓아 줄게. 천천히 따뜻하게...

그것 보세요. 주사맞으니 깜짝같이 힘이 솟네요. 다음부터는 주사 꼭 놓아 주세요.



● 우리나라 낙농의 질병의 현황 ●

저는 콘크리트 바닥에서 12시간 이상 있게되면 다리가 마비되어 일어나기 어려우니 제발 맨 땅바닥에 옮겨 주세요! 네? 주인님!



**케토시스
말로 하자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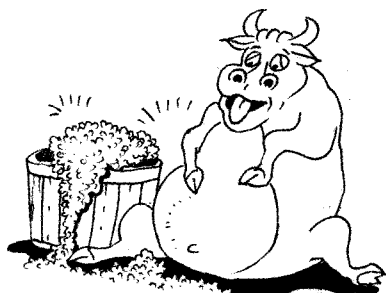
케토시스는 여러 가지가 원인으로 생체내에 케톤체가 증가하여 저혈당 및 소화기장애 또는 신경 증상을 나타내는 상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혈액중에 케톤체가 증가한 상태를 아세톤 혈증, 뇨중에 다량으로 배설되는 상태를 케톤 뇨증이라고 한다. 케토시스는 분만 후 보름에서 한달 반 사이에 많이 발생하는데 대체적으로 유량이 많이 나오는 소와 분만시 살이 많이 썬 소가 발

우리집은 케토시스가 문제야. 분만하는 소마다 케토시스네, 그러



주인님! 제발 저즘 건유기 때 농후사로 좀 조금 주세요. 저는 하는 일 없이 주인님 주시는 밥을 꼬박 챙겨 먹고 가끔 옆에서 조금 뺏어 먹으니 살이 찢수 밖에요.



생 빈도가 높고, 불량 엔시레지를 먹은 소에서도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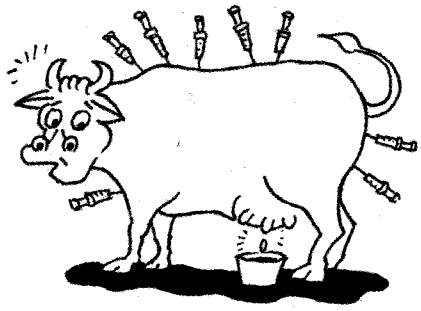
조사료는 잘 먹고 농후사료는 잘 안 먹고, 조금씩 마르고 가끔 이를 갈고 흥분하며 땅바닥을 핥고 목을 꼬는 자세를 한다. 이런 경우에는 25~50% 포도당 주사액을 2~4병/일, 5일 이상 주사하여야 한다. 당밀도 1일 2회 500g 정도 사료에 혼합하여 투여하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현실적으로 한 두 해 전만 해도 케토시스의 발생은 많은 편이었으나 이제는 사양관리 기술의 발달이나 조사료의 품질 향상으로 인해 많이 줄어든 편이고 건유시기에 유난히 과비한 소에게서 자주 볼 수 있다.

제일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건유기에 비만을 방지 하여야 한다. 분만 후 즉시 칼슘제의 투여도 상당히 효과가 있으며 간 기능에 문제가 있어도 케토시스가 문제가 되는데 간질층을 구제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

(필자연락처 : 011-796-7582)

작년에도 수의사 선생님을 케토시스로 보였는데 올해도 죽도록 주사를 맞으니 저도 여간 고생이 아니고 젖도 안 나와서 이만 저만 미안한 것이 아니에요.



달착지근한 당밀 좀 주세요. 그래야 입맛이 들지요.

